

# 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  
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 
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  
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 
 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 
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 
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 
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

●보낼곳: 우 110-170  
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-33  
 현대불교신문사  
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
 ●FAX: (02)737-0697/8  
 ●PC통신: 인터넷부디피아  
 http://www.buddhapia.com/mem/ha  
 nmaum

## 법공양 페이지

# 뿌리 믿는 나무 푸르게 살듯 불성만이 자기 이끌 수 있어



대행스님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갈파하고 생활속의 선 실천만  
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## “모두 하나인 이치 알면 다툼 있을 수 없습니다”

### 독일대법회 마친 대행스님 기자회견

나를 찾아 고(苦)에서 벗어나자는  
 갈로법문으로 독일인과 교민 3천여명  
 을 해탈의 문으로 안내한 대행스님  
 (한마음선원장)이 독일대법회를 마치고  
 귀국, 8월 31일 안양 한마음선원에  
 서 기자회견을 했다. 독일에서의 법회  
 에 대해 “서방의 물질적 현상을 주도  
 하는 정신세계에 대해 지적하고 싶었  
 다”고 말한 스님은 명쾌한 어조로 인  
 류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갈파하고  
 생활속의 선 실천을 강조했다.

독일 법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강조  
 하신 법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.

▲자기자신은 자기가 이끌어 가야  
 한다는 겁니다. 전 세계가 정신세계  
 미루고 물질적으로만 살아가니 초점이  
 맞을 수가 없습니다. 정신적으로 인해  
 내가 이끌어져 살아야 하는데 정신적  
 가 미약하죠. 겉모양은 아무것도 아  
 니니다. 독일에서 그분들 모습을 대고  
 말한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에 대고 말  
 했습니다. 내가 가서 정신세계에 입력을  
 시켰지만 끌고가는 것은 자기 할 것  
 이지요.

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경쟁을 부  
 추기는 사회라 불화가 끊고 본래의 선  
 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.

▲부처님이 오시기 전부터 진리는  
 있었습니다. 요즘 사람들은 종교를 믿  
 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리를 숭상하  
 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진리를 좇  
 아 화합해 살아간다는 것은 말없이  
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  
 전과가 서로 이어지듯이 서로 거리가  
 맞고, 이렇게 말없이 통한다면 각박한  
 세상은 저절로 순화되고 화합됩니다.

경소 강조하시는 가르침의 핵심  
 은 어떤 것입니까

▲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 
 것을 깨달으라고 하죠. 나하나가 공  
 한줄 알면 이 지구가 공한 줄 알게되  
 고 이 지구가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 
 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“생활속의 선”을 늘 말씀하시는  
 데 어떻게 수행하는 것입니까.

▲ 우리 인간들의 몸속에는 돌이  
 아닌 생명 의식이 있습니다. 모두가 공  
 동체이니 물한모금을 마셔도 내가 마  
 시는게 아니고 전체 생명들이 마시는  
 것이지요. 내가 뺏다할 수도, 안뺏다  
 할 수도 없어요. 세상 돌아가는 것이  
 다 그렇습니다. 돌로 보지 않는 마음  
 가집이 중요합니다. 돌을 더럽게 여기  
 지만 몸안에 있을때는 전혀 그렇게  
 느끼지 못하죠. 모든 것이 돌이 아  
 님을 깨닫는다면 결림이 없고 구별이  
 있을 수 없지요. 내가 여기까지 걸어  
 올때 발자국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  
 것처럼 찰나찰나 고정됨없이 살아가  
 는 것이 바로 생활속의 선입니다.

21세기에는 우리나라에 종교갈등  
 이 더 극심해 지지 않을까 사회일각  
 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. 또 세계  
 곳곳에서는 현대도 종교전쟁이 일어  
 나고 있습니다. 이를 극복할 수 있는  
 방안은 무엇인지요.

▲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한 공  
 기주머니안에 담겨있는 이치를 알아  
 야 합니다. 공기주머니안에 함께 있  
 면서 내것이니, 누구것이니 하고 탐욕  
 을 부리니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각  
 박해지는 겁니다. 형상만을 보지 말고  
 본뜻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라는 이치  
 를 안다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지요.

1972년 선원이 개원된 이래 전국  
 에 14개 지원, 해외에 9개 지원을 두  
 는 등 급성장을 하고있고 최근 인양  
 의 본원도 새롭게 중창불사를 했습니  
 다. 포교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  
 요.

▲ 힘이 없이는 하는 것이 포교입니다.  
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  
 로 내가 이룬 것도 없어요. 나라는 형  
 상을 보지 말고 그 뜻을 보면 됩니다.  
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자기로부터 비  
 뒀겠다는 것을 알면 남을 원망하지  
 않게되고 또 스스로에게 능력이 생깁  
 니다.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라는  
 생각으로 불사에 참여하다보니 원력  
 이 결실을 본 것이지요.

이경숙기자

## “유럽 정신계에 신선한 충격” 법문집 ‘해탈의 문’ 주문채도

### 독일 현지 반응

한마음선원 독일지원(지원장 혜진)  
 에는 7월 31일 대행스님 독일대법회에  
 참가했던 현지인들의 편지가 쇄도하  
 고 있다. 대부분이 대행스님의 설법에  
 크게 감동받았다는 토로이며 현장에  
 서 구입한 대행스님의 법문집 《Das  
 Tor zur Befreiung(해탈의 문)》을 읽고  
 다른 이에게도 권하고 싶으니 책을  
 보내달라는 내용들이다. 편지내용중  
 몇가지를 소개한다.

의학박사 임계보그 헤세노박은  
 “훌륭하신 대행스님의 법회에 참석하  
 는 기쁨과 한마음합창단의 감동적인  
 음성을 듣는 기쁨을 가졌다”며 “법회  
 장에서 《Das Tor zur Befreiung(해탈의  
 문)》 책을 구입해 잘 읽고 있고 정신  
 적 스승인 발리기스 신부님에게도 이  
 책을 보내드렸다”고 밝혔다.

필름에 있는 불교센터 슈타트라움  
 의 베르너 하이덴라이시는 “대행스  
 님의 불성을 설하시는 비유적 표현방  
 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아울러  
 대행스님의 모든 것 그 자체가 나를  
 인상깊게 사로잡았다. 한마음선원 독  
 일지원의 모든 분들의 친절한 영접  
 역시 감동깊었다”고 썼다.

“조직화된 종교에 매우 회의적인  
 입장을 갖고 있었다. 왜냐하면 이론과  
 실천 사이에서 큰 격차를 경험해 왔  
 기 때문이다”고 토로한 카스텐 클라  
 이스트는 “그러나 대행스님 법회는  
 나의 그러한 관념을 완전히 바꿔놓  
 아 정반대의 인상을 받았다”고 밝혔다.

빈현에 사는 F. 단게르스는 “(해탈  
 의 문)으로 친척히 그리고 명상하면  
 서 공부해 갈 것”이라며 “스님께서 불  
 교를 설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마음  
 깊이 다가온다”고 말했다.

## 항

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 
 만 우리는 한번 죽고 또 한번  
 죽고 또 한번 죽어야 한다는  
 걸 꼭 명심하십시오. 오늘은 아  
 주 어려울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생명들  
 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건지고  
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  
 리고 싶습니다.

우리 스님네들은 더더욱 그래야 하고  
 신도들도 항상 신도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  
 니가 앞으로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  
 종생을 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런지  
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나 열심히 공  
 부하십시오. 아마 그렇게 모두 되시리라  
 고 믿습니다. 그럼 제가 예전에 겪었던  
 일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.

옛날에 어느 물가를 이렇게 가다보니  
 까 아주 큰 잉어같은 고기가 있었는데  
 처음엔 이름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자세  
 히 보니 입도 이만쯤 찢어지고 몸통도  
 산산이 찢겨져 아주 바짝 말라서 그냥  
 볼 수가 없이 된 그런 고기였습니다. 그  
 래서 그 물고기는 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 
 물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걸 보는  
 순간에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‘아,  
 너는 고기의 모습을 가졌으니 사람으로  
 금방 될 수는 없겠구나. 하는 순간 다시  
 생각하기를 ‘내 물방울과 저 물방울이  
 돌이 아니고 한 물방울이라면 사람의 속  
 에 들어와서 수없이 겪고나면 사람으로  
 환생할 수 있겠지.’ 했습니다. 그렇게 하  
 지 그 고기는 서슴없이 나한테로 달려들  
 었습니다.

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. 자기

가 여지껏 살면서 고기의 모습으로 항상  
 제자리 걸음으로 살아온 게 너무나 안스  
 럽고 또 한가지는 새끼들을 낳아서 그  
 래서 또 자기와 같이 살게 하는 게 너무나  
 죄스러워서 그냥 나왔다고 하더군요.

그런데 의심하지 마세요. 고기가 어떻  
 게 말을 하느냐고 의심하지 마세요. 저런  
 나무도 돌도 다 말할 수 있고 생명이 있  
 고 살아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뜻과 뜻으  
 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 
 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, 그런 생각을 하  
 는 순간 그렇게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.  
 그런데 사람은 저 축생과 또 이 물에서  
 노는 생명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  
 든요. 차원이 다르고요. 그러기 때문에  
 고기라는 것은 사람으로 금세 환생을 할  
 수가 없습니다.

그래서 사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 
 도리를 알아야만 태어날 수 있는 겁니  
 다. 그래서 나하고 6년을 살았습니  
 다. 6년을 사는 동안에 참 너무나 잘 알아서  
 환생을 하게끔 했죠. 어디다가 싶었느냐  
 고 묻는다면 그건 대답을 안해도 되겠습  
 니다. 지금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. 그런  
 데 말입니다.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해야  
 하느냐. 생활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 
 그렇거니와 우리 스님네들도 그거는 꼭  
 알아야만 되겠다는 얘기죠. 길에 다니며  
 봐도 그렇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 
 가고 오다가도 그렇고 소가 도살장에 끌  
 러가는 걸 봐도 내가 본 게 인연이요.  
 본 게 인연이고 듣는 게 인연이요. 고  
 기들을 몰아서 모두 죽인다 이럴 때도  
 그거 본 게 인연이거든요. 보지 않았으면

## 찰나찰나 없어지는데 왜 붙들고 늘어져요 “못한다”에 걸리면 밝은 생각 나오지 않아

는 항상 도로아미타불로 맨날 새끼를 낳  
 고 알을 낳으면 자기는 또 죽어서 또 알  
 을 낳고 또 죽어서 또 그 알을 낳고 이  
 렇게 하기를 수없이 겪어왔습니다. 그러자  
 면서 너무나 자기 생각을 하나씩  
 처참해서 물 속으로 그냥 한없이 들어갔  
 습니다. 알을 낳고, 그런데 알을 낳으면  
 자기는 이미 죽어야 하는 몸입니다. 그  
 래서 물 속으로 한없이 들어갔더니 물  
 속에서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 
 다. 물 위로 솟아나올 줄은 모르고 그 속  
 에서 풀과 물과 양근만 먹고 남을 해하  
 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  
 더랍니다.

그래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 
 왜 이렇게하고 있느냐. 그러니 그쪽  
 서 대답이 “당신은 돌아와서 또 알을  
 낳고 또 돌아서 이렇게 지금 돌아오지만  
 나는 몇 생을 알을 낳지 않고 삽니다.”  
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“알을 낳지 않  
 고 이렇게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물바  
 깔으로 나가서 구경을 할려고 그러니까.”  
 그러더라고요.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  
 기는 너무나 슬프고 처참해서 그냥 거  
 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찢고 그랬습  
 니다. 잠이떨릴까봐 피해서 나올려니  
 가 모습이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 
 사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태양이 밑에까  
 지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하긴 한데 일  
 면에 한번씩 물갈이를 합니다. 물이 뒤집  
 혀서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  
 니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  
 더랍니다.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

인연이 아닐텐데 봤으니까 인연이다 이  
 겁니다. 또 닭을 몰아서 그냥 죽인다 이  
 렇게 때로 본 게 인연이요. 그러기 때  
 문에 고기가 백마리라 하면 백마리 수로  
 대로 다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 
 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 
 그 영명은 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영  
 명은 백마리를 한데 합쳐놔도 영이거든요.  
 그래서 백마리를 한데 합쳐서 하나로 탄  
 생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이 말 이  
 해가 가십니까? 백마리를 하나로 뭉쳐서  
 하나로 탄생케 한다는 것 말입니다.

그것은 또 한마리를 생생케 할려면 내  
 가 돌 아나게 안아야 됩니다. 사람이 아  
 니라 이거는 생물이니까요. 물론 다 생  
 물이겠지만 말입니다. 여러분은 넣으면 두  
 드러진다고 생각을 하시겠죠. 그러나 넣  
 으면 넣는 대로 넣는 사이가 없어 두드  
 러지지 않고 깨나도 깨나도 깨낸 사이가  
 없어 줄지 않는 것이죠.

이 마음 공부 하신 분들은 다 짐작하  
 시리라 믿습니다. 아마 이 마음 공부를  
 하신 분들은 내 이 소리를 듣고서 그냥  
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니까요. 그  
 렇게 해서 환생을 시켜도 나와 같이 알  
 았기 때문에 그건 큰 부처의 한도량으로  
 서 아마 발을 디딜 겁니다. 그러니 그  
 래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.  
 어 디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한번 만나는 것  
 이 천년만에 도 될 수 있고 몇 백년만에  
 도 될 수 있고 몇 십년만에 도 될 수 있  
 고 또 몇 달만에 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 
 죠. 본인이 간절하게 생각을 하면 연이



그림·최주현

거지마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 
 없는 거죠. 영이 스무마리라도 영을 한데  
 합치니까 영이지요. 그냥, 그래서 하나만  
 태어나게 하되 그렇게 수레바퀴에 걸려  
 서 처참하게 돌아가지 말고 이 부처님  
 을 배워서 앞으로는 잘 해야 이렇게 해  
 서 사람으로 환생을 시켰죠. 시킨 게 아  
 니라 저절로 시켰죠. 사람이 생각을 한  
 생각을 잘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 
 다는 얘깁니다.

그럼 우리가 한생각 하기가 얼마나 어  
 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생각하  
 기가 어 쟁. 그냥 생각하는 거 하고 한  
 생각 하: 는 다른 겁니다. 육체하나를 가  
 지고도 !정됨이 없어서 모든 생명들이  
 이 오장육부 안에 들어있으니 이거는 공  
 생이다 이런 겁니다. 공생으로 살고 공  
 생으로 살아가. 공생으로 살고 공생으로 살  
 고 공체로 살고 공용으로 하고 있다는  
 걸 알면 공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 
 되고 공식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걸 알  
 면 우리가 그대로 자기가 공한 것을 알  
 게 됩니다. 그때는 너무나 심스럽고 정  
 말이지 잘 살수 있다는 사실을 맛볼 것입  
 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그것이 좋았다  
 늘려야 하는 고무를 같은 법입니다. 이 진  
 리는, 그리고 이 법은 자유스러운 것이  
 이렇게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정해놓  
 게 없어요. 한생각으로서 그 상황을 봐서  
 하나로 하려면 하나로 하고 둘로 하려면  
 둘로 하고 셋으로 하려면 셋으로 하고  
 아주 안하려면 안하고 그게 자유예요. 그  
 게 자유스러운 거예요.

하여튼 축생은 사람을 한번 거쳐서 태  
 어나야 됩니다.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려  
 면 바로 위의 축생으로 태어나서 또 그  
 런 고생을 해야 하고 더 큰 축생으로 또  
 태어나야 하나기 사람으로 막바로 들어  
 가면 그냥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 이  
 소입니다. 이것도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

어떻게 하면 그 닭을 천도할때 만약에  
 이 지구안에 사람이 아주 적어서 실리가  
 다 한번씩 만날 수 있다면 스무마리를  
 다 사람으로 해야죠. 그렇지만 이렇게 사  
 람이 많은 틈에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게  
 한다면 그것도 약간 고역이 아니거든요.  
 생각을 해 보세요.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 
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극치적으로  
 돌아야 하나기 말이예요.

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 
 는 모습을 바꿔서 진화시켜서 인도환생  
 으로서 하되 스무마리를 하나로 뭉치는  
 거예요. 영을 스무개를 한데 합치면 영  
 이 몇개나 되겠습니까. 사실은 영도 없는

16면으로 계속